
2018년도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



울 주 군 의 회
(의 회 사 무 국)

목 차

I. 개요	1
II. 연수일정	3
III. 연수국 현황	
1. 일본	4
IV. 주요 연수내용	
1. 다테지다이무라(시대촌)	19
2. 지고쿠다니(지옥계곡)	22
3. 살아있는 쇼와신산 활화산 우스잔	24
4. 도야 호수	25
5. 도야호 비지터센터 화산과학관	27
6. 오타루 운하	31
7. 기타이치 가라스관	33
8. 오르골 전시관	34
9. 사회복지법인 노마드복지회 데이서비스센터 '하루'	36
10. 오도리 공원	38
11. 구 홋카이도 청사 및 삿포로 시청	40
V. 의원별 정책제언 및 시사점	44
VI. 총평	53

I 개 요

1. 연수국가

- 일본(북해도)

2. 연수목적

-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잦은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진을 비롯하여 폭설로 인한 방재상황 등 각종 재난 대응·대비 훈련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난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자연관광자원과 해양 관광자원 및 각종 관광자원화 우수 사례의 자료수집 등 다양한 관광사업의 비교 견학을 통해 우리군 산악, 해양, 공공시설 추진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군 지역에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각종 공원의 설치 현황 및 도심조경에 접목할 우수 사례를 체험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3. 연수기간

- 2018. 1. 9. ~ 1. 12. (3박 4일)

4. 보고서 작성자

- 의회사무국 행정7급 신호원

5. 연수대상

연번	직책	성명
1	의 장	한성율
2	부 의 장	권영호
3	의회운영위원장	박동구
4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
5	원전특별위원장	박기선
6	의 원	이동철
7	의 원	조충제
8	의 원	김민식
9	의 원	정수진
10	의회사무국장	손영순
11	건설복지전문위원	김용완
12	의정담당	제순경
13	주무관	최상국
14	주무관	신호원

II

연수일정

일 자	장 소	업 무 수 행 내 용
제1일 01/09 (화)	부 산 치토세 노보리베츠	부산 김해국제공항 출발 치토세 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 노보리베츠로 이동 ◎ 역사·전통·민속을 관광자원화한 사례 자료 수집 - 다테지다이무라(시대촌) ◎ 자연관광자원 활용 벤치마킹 : 지고쿠다니(지옥계곡)
제2일 01/10 (수)	노보리베츠 도 야 쇼잔케이	노보리베츠에서 도야로 이동 ◎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 - 살아있는 쇼와신산 활화산 우스잔 견학 ◎ 해양관광자원 활용 벤치마킹 : 도야호수 ◎ 일본 재난 대응·대비 현황 자료수집 - 도야호 비지터센터 화산과학관 견학 쇼잔케이로 이동
제3일 01/11 (목)	쇼잔케이 오타루 삿포로	쇼잔케이에서 오타루로 이동 ◎ 해양관광자원 활용 벤치마킹 : 오타루 운하 ◎ 유리 공예전시관 견학(웅기마을 활용방안 모색) - 기타이치 가라스관 ◎ 관광자원화 사례 자료 수집 : 오르골 전시관 삿포로로 이동 ◎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견학 및 복지정책 자료 수집 - 사회복지법인 노마드복지회 데이서비스센터 '하루' 견학 ◎ 공공시설의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 : 오도리 공원 ◎ 랜드마크 및 문화유적지 활용사례 벤치마킹 : 구 북해도청 ◎ 지역 관공서 견학 : 북해도청, 삿포로 시청
제4일 01/12 (금)	치 토 세 부 산	치토세 공항 출발 부산 김해국제공항 도착

나. 정치

- 현재 일본은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천황은 상징적 원수로 일본헌법에는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되어 있다. 현재 국가원수는 125대 아키히토 일왕(明仁天皇)이고,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이다.
- 일본은 삼권분립체제로 삼권의 소재는 헌법 제41조(국회의 지위·입법권), 제65조(행정권), 제76조제1항(사법권)에 명기되어 있고, 입법권은 국회에, 행정권은 내각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해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 다르게 의원 내각제를 채용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의원내각제를 취하기 때문에, 국회와 내각의 관계가 「상부상조」를 배재하지 않으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1) 행정부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실상 부나 성 차원의 조직 개편이 전혀 없었다가, 2001년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다. 개편을 통하여 기존의 1부 22성청은 1부 12성청으로 개편이 되었고 법령이나 정부의 공문서에서는 이를 가리켜 ‘중앙성청 등 개혁’이라는 표기를 정식으로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국가 행정조직법에서 말하는 「국가 행정 기관」은 1부 12성청(성:10, 청:1, 위원회:1)으로 내각부,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방위청, 국가공안위원회가 있다. 일본의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 가운데 선출되며 의결에 의해 정해진다. 국무대신은 총리가 직접 임명하며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가운데 선출된다. 만약 중의원에서 내각불신임을 결의할 경우,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거나 이에 불복해 국민의 의견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 행정구역상으로는 47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구획이 나뉘지며, 동경도(도오교토도(東京都)), 북해도(홋카이도,北海道), 경도부(교토부,京都府),대판부(오사카,大阪府)등과 43개의 현으로 이루어져있고 지방자치제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 입법부

- 일본의 국회는 국가 유일의 입법기관일 뿐 아니라 국권의 최고기관이기도 하다. 국회는 헌법개정을 발의하며, 예산안을 결의하고, 조약을 승인하며, 내각 총리대신을 지명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양원제(중의원, 참의원)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신중한 심의를 통해 중의원의 지나친 움직임을 참의원이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의원과 더불어 참의원 또한 의결권을 가지나, 서로 상이한 의결을 도출한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이 우선된다. 중참 양원은 원칙상 대등한 지위에 있으나 실제로는 많은 경우 중의원의 우위가 인정되고 있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해산이 가능하다. 참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의석의 절반이 바뀌는 체계이다.

3) 사법부

- 일본국 헌법 제76조 제1항에서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하급재판소에 귀속되며, 제2항에서는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해, 행정 기관이 최후 심리로 재판을 행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모든 사법권은 재판소에 귀속되며 여기서 말하는 「사법권」은 실질적인 의미의 사법 작용을 실시하는 권능, 행정 사건을 포함한 모든 재판을 실시하는 권한을 지칭한다. 즉, 사법권은 오직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는 조직에게 귀속되며 이와 다른 재판소(특별재판소)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

- 일본의 정당제는 55년 체제하에 오랫동안 자민당이 여당으로 계속 집권해 온 것이 특징이다. 55년 체제는 전형적인 일당 우위제의 상황이었다. 자민당의 일당 지배가 끝난 1993년 이후는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정권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보면 온건한 다당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민주당과 자유당이 합병한 2003년 이후, 조건에서 보면 2대 정당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2007년에는 중의원에서는 자민당이 제1당, 참의원에서는 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한 상태가 2009년까지 계속 되었다)

다. 경제

- 아베노믹스(Abenomics)는 아베 신조 총리가 ‘잃어버린 20년’ 탈출을 위해 내건 경제 정책으로, 「아베」와 「경제학(이코노믹스)」을 합친 신조어이다.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 3%

이상의 명목 GDP 달성 등을 위한 경제 정책이며 아베 총리는 2015년 9월 자민당 총재에 재선된 뒤,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가 2단계로 들어갔다"며 아베노믹스의 「新 세 개의 화살」을 내세웠다.

-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민간투자다. 초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아베 정권이 안보 관련 법 통과를 시도하자 일본 시민 사회에서 거센 반발로 지지율이 급락하기도 하였으나, 복지를 확대한 아베노믹스 2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지율이 회복되기도 하였다.
- 2015년 9월에 나온 2기 아베노믹스 정책에서 아베 정권은 '1억 총활약 사회'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명목 GDP 600조 엔 달성, 희망 출산율 1.8 실현, 노인요양을 위한 이직 제로(0) 실현" 등을 이루겠다고 주장했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기회복은 뚜렷하다. 급기야 2017년 9월경에는 58개월 연속 경기회복 추세를 이어가며 전후 2위였던 '이자나기 경기(1965년 11월 ~1970년 7월)'를 넘어섰고, 체감경기도 확연히 개선됐으며, 그 단적인 예로 대졸 예정자들의 취업 내정률을 들 수 있는데, 2018년 3월에 졸업하는 대학 4학년생들의 내정률은 이미 9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원 : 중앙일보("바보야, 문제는 경제야!"..아베의 숨은 무기는 아베노믹스)

라. 문화

- 일본문화의 특징은 조문[繩文]·야요이[彌生]시대의 토기,

하니와에서 볼 수 있는 고대미(古代美)를 비롯하여, 아스카 [飛鳥]·하쿠호[白鳳] 시대의 건축·조각 또는 <만요슈 萬葉集> 에서 비롯된 와카[和歌], 하이쿠[俳句]와 같은 독특한 시가(詩歌)가 있다.

- 현대 작품의 인기 있는 또 다른 형태가 만화다. 만화는 일반적으로 각 책마다 새로운 내용을 담은 시리즈물이나, 사회 정보, 역사 또는 기타 논픽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때때로 만화영화로 제작되어 극장 및 텔레비전에서 인기리에 상영되기도 한다. 일본의 만화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 250년에 걸친 왜국은 문화통합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었고, 정부가 메이지 초기 이후 의도적으로 추진한 정책, 국어표준화, 신도(神道) 국교화, 덴노의 신격화 등이 동질성 높은 문화를 갖게 했다. 그러나 그 문화전통에도 다양성을 산출하는 조건이 존재했다. 4개의 주요 섬으로 이루어진 일본은 지역적인 다양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남쪽에서 들어온 민족집단, 북방에서 들어온 민족집단, 중국대륙에서 도래한 민족집단이 중층적으로 혼혈이 이루어졌는데, 각 계통의 문화요소가 민족의 형성과 함께 중층적인 일본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 또한 봉건제 전개와 바쿠한[幕藩] 체제의 정비에 의해 지방 문화가 각지에서 발달했다. 사농공상의 신분계층적인 부분문화가 각지에서 발달하여 현대 일본문화의 기초가 되고 있다. 왕실을 중심으로 한 문화전통도 계층적 부분문화라 할 수 있다. 또한 일찍부터 해외로부터 문화요소의 유입·전파가 있었다. 4세기 이전에는 농업·철, 7세기까지는 한자·불교·유교·도교

및 도시계획·정치행정제도가 유입되었고, 16세기에는 그리스도교·총기·서양문물이 유입되었다.

-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화도 그 계보를 잇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 문화요소의 적극적인 채용경향을 이유로 일본 문화를 모방문화·잡종문화로 보는 설도 대두한다.
-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것에서부터 국제적인 종목에 이르기까지 널리 스포츠가 보급되어 있다. 축구, 전통무술, 겨울스포츠, 야구, 수상 스포츠 등이 특히 대중화되어 있다. 외국에 잘 알려진 또 다른 전통 일본 스포츠로는 스모가 있다. 면이나 비단으로 만든 두껍고 무거운 살바(마와시)만을 두른 거구의 두 선수가 서로 쓰러뜨리거나 동아줄을 둘러친 원형의 씨름판 밖으로 밀어내는 경기다. 경기 시간은 보통 1분 미만으로 매우 짧으며, 눈 깜짝할 새에 끝나기도 한다. 모든 경기는 정화의 표시로 씨름판에 한줌의 소금을 뿌리는 의식으로 시작된다. 스모 선수들은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10대 중반에 시작하여 수년간 훈련한다.
- 일본에서는 야구와 축구가 특히 인기 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유명 선수들로 구성된 프로축구팀에 대한 일본 축구팬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프로축구는 1992년 출발과 동시에 성공적인 J리그를 이루게 된다. 또 다른 열렬한 팬들을 가지고 있는 스포츠가 야구다. 전국 고교 야구대회는 매년 봄과 여름에 2회 열린다.
- 현재의 일본에 전해지는 전통 요리가 발달한 것은 에도 시대로, 전통 요리로는 연회용 정찬인 가이세키 요리와 혼젠

요리 등이 있다. 가이세키 요리의 경우 우선 국, 생선회, 찜, 구이 등이 먼저 나온 후, 마지막에 밥과 쓰케모노가 나오는데 식단에 따라 5첩, 7첩, 11첩 반상이 된다. 또 한국이나 중국처럼 젓가락을 사용하지만 젓가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기 때문에 밥이나 국 같은 경우에는 입에 대고 먹거나 마신다. 현대 요리로는 여러 인스턴트 식품이 일본에서 발명되었는데, 1958년 닛신 식품이 최초로 인스턴트 치킨 라면을 발매한 이래 1971년에는 컵라면이 등장하여 대한민국에까지 알려졌다. 인스턴트 식품의 인기가 폭발한 이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냉동식품이 인기를 끌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전부터 존재했던 캔(Can)을 플라스틱 포장으로 바꾼 레트로트 식품도 발명되었다. 이처럼 현대의 일본 요리는 간편하게 요리할 수 있는 간이 식품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마. 최근 사회 동향 및 이슈

○ 동일본 대지진

-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일본 동북지방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매그니튜드 9.0을 기록하며 일본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남아있다. 특히 지진 발생 직후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규모의 쓰나미가 동북 지방은 물론 관동 지방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연안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 주었다. 또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도쿄 전력 관할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방사능의 심각한

유출 사태로 이어졌다.

-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규모는 사망자 15,866명, 행방 불명자 2,946명(2012년 6월, 내각부 발표)로 약 2만 명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됐으며 피해 지역에서는 도쿄 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영향도 포함해 약 34만 명 이상이 피난 생활 및 가설 주택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추정 피해 금액은 약 16조 9,000억 엔에 달한다.

- 일본 정부는 주요 피해 지역의 부흥과 산업 재개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지만 해외 경제 침체 등과 시기가 겹치면서 좀처럼 지진 발생 이전의 경제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도 동북 지방 연안부의 복구 및 부흥 그리고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과 피난 생활 중인 주민들의 귀환, 피해자의 생활 보장 및 고용, 건강 피해 대책, 앞으로 다가올 자연 재해의 대비 등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 구마모토지진

- 2016년 4월 14일 21시 26분, 규슈지역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두 현에서 리히터 규모 6.5(잠정치), 진도 7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일본에서 진도7이 관측 된 것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4번째로 규슈 지방에서 진도7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4월 16일 구마모토현에서 14일의 규모를 초과하는 7.3의 지진이 발생, 이것이 본진인 것으로 밝혀졌다.

-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49명, 중·경상자를 포함해 1,665명(2016년 6월 15일 내각부 발표)으로 약 1,700여명이 희생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가설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정 피해 금액은 최대 4.6조엔에 달한다. 이 지진으로 구마모토현의 상징인 구마모토성 돌담이 크게 무너지고 낙석이 도로에 산란(散亂)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무너진 망루는 국가의 중요 문화재로, 복구에 몇 년 걸릴지 모르는 것이 현실이며, 수리 비용은 수십억엔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는 피해 지자체의 재해 복구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율을 올릴 수 있도록 격심(激甚)재해지역 지정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추후 인프라 복구와 함께 가설 주택의 정비 등 이재민 생활 재건에 임할 예정이다. 또한 2016년도 보정 예산안에도 구마모토 지진 복구 예비비를 창설하는 등 경제 기반의 조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수천억엔이 될 전망이다.

○ 소비세 인상 예고

- 아베 총리와 희망의 당은 소비세 인상 부분에서 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2014년 1차 소비세 인상(5%→8%로)을 단행하고 2차 인상(8%→10%)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권의 강력한 반발로 이미 2차례 연기했다. 아베 총리는 2017년 10월 총선 토론회에서 1차 인상에 따른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에 2차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부터 추진한 경기부양책인 아베노믹스를 언급하며 소비세 인상과 더불어 중앙은행의 대규모 돈풀기 전략

(양적완화)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고이케 지사는 현 정권의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세 동결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사히신문이 2017년 10월 17~1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인상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여론 악화를 무마하기 위해 2017년 9월 발표에서 소비세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 2조엔 (약 20조114억원)을 육아와 간병 같은 복지혜택으로 돌려주겠다고 공언했고, 이에 야당측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세금을 올려놓고 다시 쓰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예산이 유치 당시 7천3백억엔에서 현재 2조~3조엔으로 추산되는 만큼 새로 출범하는 아베 정부의 재정 계획에 난항이 예상된다.

○ 마이넘버 제도 도입

- 일본 정부는 ‘행정의 효율화’, ‘국민의 편리성 향상’, ‘공평 공정한 사회실현’을 위해 마이넘버 제도 도입을 시작했다. 마이넘버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개념으로 국민 개개인의 12자리 번호로 2015년 10월부터 외국인을 포함 주민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마이넘버를 통지 받았다. 마이넘버를 통지 받은 후에 시구청촌에 신청하면 신분증과 각종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마이넘버 카드가 교부된다.

- 마이넘버 카드에 기록되는 것은 성명, 주소, 마이넘버 등이며 소득 등 개인정보는 기록되지 않는다. 201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등 행정절차 시 마이넘버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게 됐다.

○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 일본은 다가오는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패럴림픽 개최를 통해 막대한 경제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모노레일 설치 및 도내 인프라, 올림픽 관련 시설 건설 등이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이를 2020년까지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 인프라 정비에 따른 고용 촉진은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일본은 소비세 인상 등으로 소비가 침체돼 있는 상황이나 올림픽 특수와 같은 올림픽 관련 상품의 소비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의 인바운드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동일본 대지진과 원전 사고의 영향으로 국제적으로 불안한 이미지가 있으나 도쿄 올림픽을 성공시킴으로써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안심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해외 관광객의 증가가 전망되며 일본 전체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된다.

※자료원 : www.kotra.or.kr,
파이낸셜뉴스(아베,北風타고 대세장악...2차 소비세 인상 강행 예고)

바. 연수지 현황

○ 홋카이도[(北海道(ほっかいどう))(북해도))

- 개요 :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는 삿포로시[札幌市]이며 도청소재지이다. 홋카이도라는 이름은 전통적으로 일본에서 사용된 오래된 행정구역인 오기칠도(五畿七道)를 따라 1869년에 홋카이도(북해도)라고 이름지었다. 일본에서는 혼슈 다음으로 두번째 큰 섬이며 세계적으로는 21번째로 큰 섬이다. 북동쪽에는 오호츠크해에 접해있고 동쪽에는 태평양이며 서쪽에는 동해가 있다. 본토 일본인들과 다른 아이누 민족이 거주하였으며, 그외에도 소수민족으로 오로크 족, 니브호 족, 에벤크 족, 오로치 족이 있으며 메이지시대 이후 일본인들이 대거 이주하였다.
- 지 리 : 홋카이도는 북위 41.21에서 북위 45.33사이에 위치한 일본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섬이다.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이곳은 면적이 약 83,451km²로 일본 국토의 약 22%를 차지하는 광대한 토지가 펼쳐져 있다. 또 이 곳에는 국립공원 6개, 국정공원 5개, 도립공원 12개가 있어 그 총면적은 홋카이도 전체의 10%에 이른다.
- 기 후 : 홋카이도는 1년 내내 시원하고 쾌적한 기후를 갖고 있다. 초목이 일제히 싹트는 봄, 장마가 없고 온갖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 여름, 그리고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 새하얀 눈이 대지를 감싸는 겨울이 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습도가 낮아 지내기 좋은 여름과 스키를 비롯하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겨울은 물론, 사계절을 통해 좋은 명소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 민 족 : 홋카이도는 예로부터 아이누민족이 살던 지역이다. 1869년에 개척사가 설치된 이후 현재에 이르는 약 130여년 동안 농업과 수산업 등을 기반으로 발전을 이루어 왔다.
- 시 차 : 한국시간과 동일하다.
- 인 구 : 약 5,348,102명 (2017년 3월 31일기준, 일본 전체 인구의 약 4.4%)
- 언 어 : 일본어. 홋카이도 특유의 방언은 거의 없고 수도 도쿄와 같은 말이 사용된다.
- 역 사 : 본래 아이누족(族)이 살고 있던 미개지로 에조치 [蝦夷地]라고 불렸으며,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후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다. 러시아 영토와 가장 가까운 지시마[千島] 열도 가운데 남쪽의 구나시리[國後]·에토로프[擇捉]·시코탄[色丹]·하보마이[齒舞] 제도는 홋카이도 도청의 관할 하에 있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러시아로 귀속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탄광과 광산개발을 위해 수십만 명의 한국인과 중국인을 강제징용하였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양을 쫓는 모험」에 보면 미개척지였던 홋카이도에 어떻게 사람이 정착해 살게 됐는지 서글픈 사연이 담담하게 서술돼있다.
- 산 업 : 현재 제1차 산업과 경공업 중심의 제2차 산업이 주산업이다. 홋카이도는 일본 전 국토를 통틀어 유일하게 식량 자급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한다. 일본 식량자급률을 계산할 때 홋카이도를 빼고 계산하면 퍼센티지가 반토막날 정도이며, 반대로 홋카이도 내의 식량 자급률은 평균 약 200%라고 한다. 농업은 밭작물 위주의 대규모 경영을 특색으로 하며, 쌀 외에 감자·콩·팥·옥수수 생산이 많고 사탕무·박하와 근래에는 아스파라거스 등 기호작물 재배가 늘고 있다. 네무로[根室]·

구시로[釧路]·소야[宗谷]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낙농 외에 돼지·말·면양·채란계(採卵鷄) 등의 사육이 성하다. 젓소와 고기소의 두수는 전국의 4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80% 이상을 유제품으로 가공해 전국에 공급하고 있다. 가문비나무·분비나무·졸참나무·자작나무 등의 천연림이 많아 임업지대를 이루며, 제재원목·펄프용재를 생산한다. 주변 해역은 원래 세계적인 어장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남획 및 북방 어장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어획량이 감소하고 일부 어종도 바뀌었다. 어획량은 172t(1997)으로 일본 제1의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 주요 어획물은 명태·연어·오징어·쥐노래미·꽂치 등이고 게가 많이 잡힌다. 공업은 도내의 자원을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낙농제품·목제품·펄프·철강 등 공업이 삿포로·무로란[室蘭]·구시로·도마코마이·아사히카와[旭川]·하코다테[函館]·오타루[小樽]등지에 발달하였다.

- 풍부한 관광자원 : 홋카이도의 지붕을 형성하는 "다이세쓰산 국립공원", 비경이 남아있는 "시레토코 반도", 단학 등 귀중한 생물이 서식하는 "구시로 습지", 수많은 화산과 호수가 있는 "시코쓰도야 국립공원", 다양한 얼굴을 가진 "샤코탄 해안" 등 웅대한 관광자원이 풍부하며, 겨울에 열리는 "삿포로"의 눈축제 및 "몬베쓰"의 유빙축제, 여름 "후라노"의 라벤다 축제, 풍어와 조업의 안전을 기원하며 연안 각 도시에서 여름에 열리는 항구축제 등, 홋카이도에서는 연간 약 1,200회 이상의 계절별 축제와 이벤트가 풍부하게 개최되고 있으며, 계절마다 다채로운 모습의 홋카이도를 볼 수 있다.

※자료원 : 두산백과

IV

주요 연수내용

1일차 (1.9) 삿포로 - 노보리베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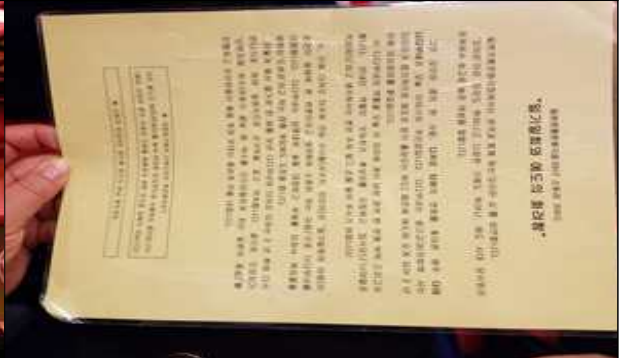
- 다테지다이무라(시대촌) 견학
- 지고쿠다니(지옥계곡) 견학

1. 다테지다이무라(시대촌)

- 방문 목적 : 역사·전통·민속을 관광자원화한 사례 자료 수집
- 주요 내용
 - 홋카이도의 대자연에 둘러싸인 총면적 28만 3000m²의 드넓은 부지에 일본풍의 목조 건물과 시바이고야(芝居小屋)·테마관 등을 중심으로 에도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거대한 역사공원이다.
 - 한국은 민속, 전통적인 테마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역사·민속 테마파크를 가리키는 말로 ‘민속촌’이 일반화되었지만, 일본은 민속적인 주제보다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건축물, 드라마를 재현하는 역사 테마파크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시대촌’이란 명칭이 주로 쓰인다. 참고로 일본의 테마파크 명칭 중 시대촌(時代村)은 역사 마을(歴史村)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민속촌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역사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가리키고 있다.

- 노보리베츠 다테지다이무라는 일본 에도시대 동북지역의 유명한 장수 ‘다테마사무네(伊達政宗)’라는 인물캐릭터를 이용해 테마파크를 구성한 점에서 흥미롭다. 본격적인 일본 에도시대의 건축물과 전통 연극, 닌자 쇼, 당시 일본의 전통 의상을 입은 행사 관계자들의 모습 등 다양한 볼거리를 통해 과거 에도시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주요 시설로는 극장 네 곳(닌자 극장, 전통문화 극장, 역사 극장, 냥마게 극장)이 있으며, 하루에 2회에서 4회의 공연이 있다. 이 외에 야외에서 열리는 닌자 쇼가 주목을 끌고 있다.





2. 지고쿠다니(지옥계곡)

○ 방문 목적 : 자연관광자원 활용 벤치마킹

○ 주요 내용

- 노보리베츠 지고쿠다니(지옥계곡)는 북해도 최대 온천지역으로 일본 3대 온천 중 한 곳이며, 입구에 커다란 도깨비들이 서있는 온천마을이다.

- 노보리베츠가 자리한 시코츠토야국립공원은 ‘살아있는 화산 박물관’이라 불린다. 시코츠호와 토야호 등 2개의 칼데라호(화산 분화구에 형성된 호수)를 거느리고 있고, 근년에 활동한 화산이 많은 공원으로, 다종다양한 온천과 화산활동을 볼 수 있다.

- 지고쿠다니는 약 1만 년 전에 폭발한 카사야마 활화산의 분화구로, 직경 450m, 반경 12ha에 이른다. 부글부글 끓는 수많은 분출구에서 솟아난 온천수가 계곡을 따라 흐른다. 이 온천수는 1분당 3,000ℓ가 솟아오르는데 그대로 계곡으로 흘러내려가거나 관을 통해 온천장으로 들어오며 온천수의 온도는 45~90도 정도이다.

- 지고쿠다니로 향하는 마을 입구에 커다란 빨간도깨비 동상이 정승처럼 서서 온천지역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연자원을 그대로 관광자원으로 살려 특별한 인공적인 시설물 없이 산책로만이 온천수가 나오는 화산구로 이어지는데 눈 덮인 산과 함께 화산지역 특유의 유황냄새, 화산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매우 이색적이다.



2일차 (1.10.) 노보리베츠-조잔케이

- 살아있는 쇼와신산 활화산 우스잔 견학
- 도야호수(사이로전망대 및 유람선) 견학
- 도야호 비지터센터 화산과학관 견학

3. 살아있는 쇼와신산 활화산 우스잔

- 방문 목적 :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
- 주요 내용

- 도야 호수의 남쪽에 있는 우스잔은 2만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산이다. 도야 호수도 우스잔의 화산 폭발로 생겨났으며 도야 호수의 온천도 1910년 우스잔의 분화로 인해 생긴 것으로 여기지고 있다. 아름다운 도야 호수와 도야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쇼와신산의 모습도 볼 수 있다.





4. 도야호수

○ 방문 목적 : 해양관광자원 활용 벤치마킹

○ 주요 내용

- 직경 약 10km의 원형에 가까운 칼데라 호로 최대 심도 179.7m, 최대 투명도 17m이다. 칼데라 형성 후 호수 중심부에 중앙 화구구인 나카지마 섬[中島], 남안에 우스 산[有珠山]이 형성되었으며, 1944년에는 쇼와 신산[昭和新山 : 408m] 등의 용암탑이 출현했다.

- 부동호로 각시송어·황어·독중개 등이 서식한다. 7월 상순에 호수제가 열리며 호반에는 도야 호 온천, 소베쓰[壯瞥] 온천이 있다. 1949년에 시코쓰도야[支笏洞爺]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사이로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파노라믹한 도야호 설경이 감상 포인트이며, 도야호수 선착장에서 타는 유람선 또한 도야호수를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5. 도야호 비지터센터 화산과학관

○ 방문목적 : 일본 재난 대응·대비 현황 자료수집

○ 주요내용

- 도야호 우스산 지질공원은 2009년 8월 22일 이토이가와 지질공원, 시마바라반도 지질공원과 함께 일본에서 최초로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된 곳이다. 도야호 우스산 지질공원에는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웅대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귀중한 지질 더 나아가 주변의 풍요로운 자연에서 자라난 조몬문화의 유적군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 도야호 우스산 지질공원의 핵심 중 하나는 ‘화산과의 공생’으로 우스산은 재해를 일으키는 화산임과 동시에 인간에게 온천, 농작물, 아름다운 경관 등 다양한 혜택을 베풀었다.
- 도야호 비지터센터는 시코쓰 도야 국립공원 중에서 시코츠호와 같이 가장 북쪽에 위치한 부동호인 도야호와 활발한 화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우스산 등 도야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자연과 그 자연과 친해지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전시를 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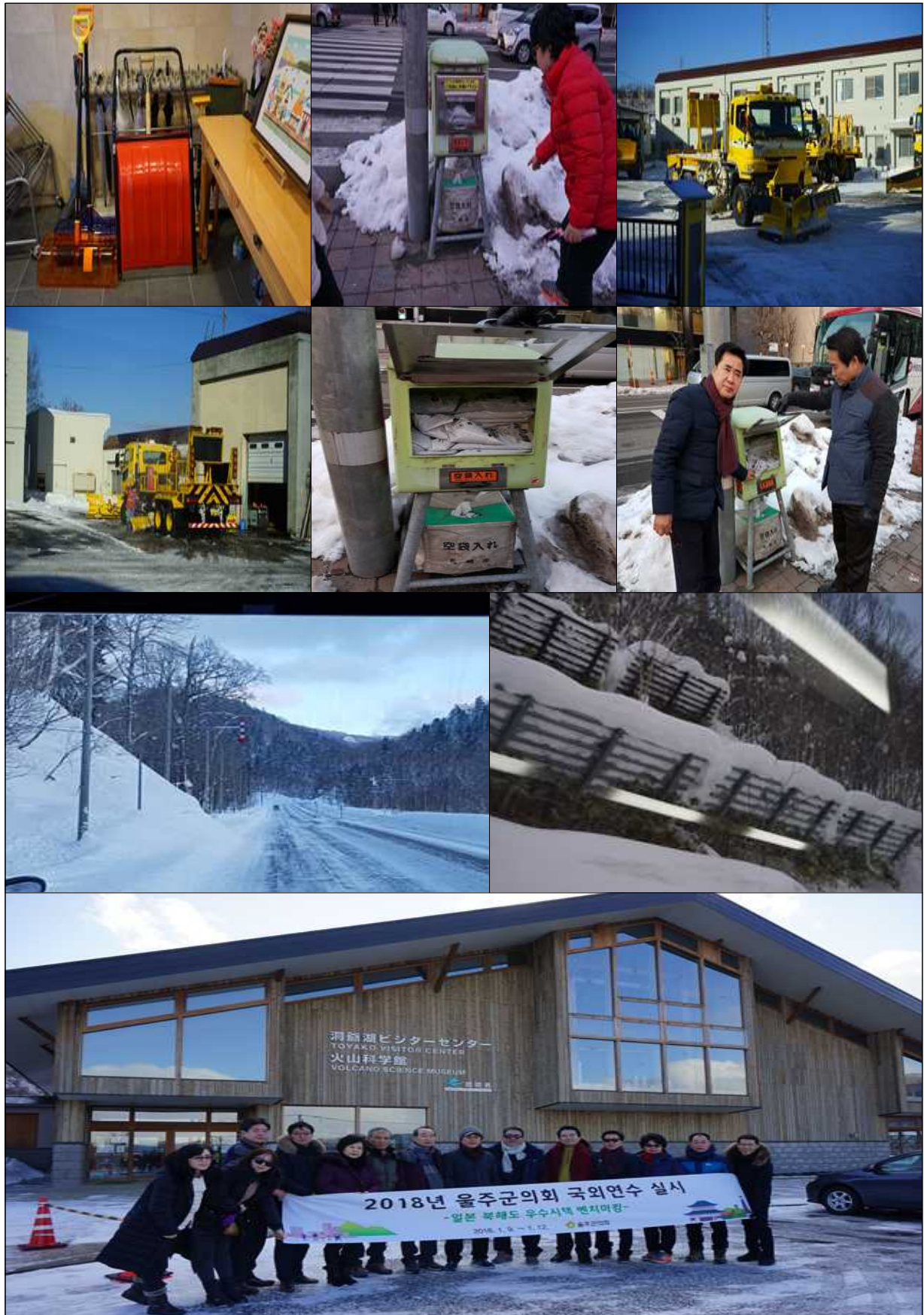
- 도야호 비지터센터 1층에 화산과학관이 있는데, 화산과학관에서는 1977년 분화, 2000년 3월 분화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분화를 반복해 온 우스산의 화산활동을 영상과 해설, 체험 장치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 1977년 분화 당시의 분연이 12,000m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우스산은 대략 30년이라는 짧은 분화 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화산성 지진과 같은 전조현상이 뚜렷하여 분화가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산'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
- 화산과학관 내에는 화산분화시의 피난소 생활을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도 있는데, 단순히 화산 자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화산 재해 시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도 전시를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 또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연료로 알려져 있는 목재펠릿을 원료로 하는 목재펠릿보일러를 센터 내에 비치하여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자제해 지구온난화를 예방하여 화산 재난에 대응·대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참고할 좋은 사례인 것 같다.

※ 목재펠릿 : 목재제재 부산물 또는 숲가꾸기 산물을 톱밥으로 만든 후 압축해 담배필터 모양으로 만든 목재연료로, 겨울철 연료비를 등유 대비 약 40%이상 절감할 수 있고 운송·보관이 용이하며, 연료공급이 편리하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연료로 알려져 있음.

- 이 외에도 북해도지역 고속도로변에는 적설량을 재는 눈금자 역할의 기둥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고속도로는 사고가 크게 날 위험이 있어 일본에서는 일정 눈금이상으로 눈이 오면 차량 운행을

전면통제한다고 하고 보행자 등을 위해 인도나 도로변에 모래함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고 제설차량이 수시로 눈을 치우고 모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 안전을 중시하는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3일차 [1.11.] 죠잔케이-삿포르

- 오타루 운하 견학
- 기타이치 가리스관(유리공예전시관), 오르골 전시관 견학
- 사회복지법인 노마드복지회 데이서비스센터 ‘하루’ 견학
- 오도리 공원, 구 홋카이도 청사 등 견학

6. 오타루 운하[小樽運河(소준운하)]

- 방문목적 : 해양관광자원 활용 벤치마킹
- 주요내용
 - 오타루운하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서부 오타루[小樽]에 있는 운하로 1914년에 착공되어 9년 걸려 완공되었고 오타루의 상징이 되는 장소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현대적인 항구 도크 시설이 마련되고 대형선박 화물을 하역하는 시스템이 개선되자 운하는 원래의 운송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 방치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시민들의 복원운동에 힘입어 매립되는 위기를 모면하고 복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0세기 초반에 운하를 따라 건설되었던 창고들은 쇼핑점, 박물관, 레스토랑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현재 오타루 운하를 가면 낮에는 운하를 따라 가지런히 늘어선 작은 가게들을 볼 수 있고, 밤에는 63개의 가스등에 불이 들어와 연인과 함께 운치 있는 산책을 즐길 수 있다.



7. 기타이치 가라스관

- 방문목적 : 유리 공예전시관 견학으로 옹기마을 활용 방안 모색
- 주요내용
 - 기타이치 가라스관은 오타루의 특산품으로 잘 알려진 유리 공예품 전시관이다. 간단한 기념품부터 화려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소품까지 유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1,000여점이 넘는 유리공예품을 판매한다. 기타이치 가라스 주변에는 비슷한 스타일로 운영하는 유리공예품 전시관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 도심속 전시관 견학과 산책을 즐기기에 적당한 곳이다.
 - 유리공예 작업장 공개와 여러 가격대에 크기와 용도도 천차 만별인 유리공예품의 전시·판매로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머니를 열게 하는 기타이치 가라스관을 우리군의 옹기마을에 접목하면 전세계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8. 오르골 전시관

- 방문목적 : 관광자원화 사례 자료 수집
- 주요내용
 - 오타루 오르골당(小樽オルゴール堂)은 오타루의 명물 오르골을 전시 판매하는 상점 중 가장 큰 규모다. 세계 각국의 모든 오르골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판매하는데 무려 3만여 점에 달한다.
 - 연주자가 직접 연주하는 오르골, 자동연주 오르골도 있고, 크기도 형태도 연주곡도 다양한 오르골이 가격대도 저가에서 고가로 다양하여 오타루에 오면 오르골 하나 정도는 기념품으로 소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특산물이자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다. 우리군
옹기마을에도 접목하면 전세계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9. 사회복지법인 노마드복지회 데이서비스센터 ‘하루’

- 방문목적 : 일본의 노인복지시설 견학 및 자료수집
- 주요내용
 - 삿포로 북 17조에 주소하는 사회복지법인 노마드복지회 데이서비스센터 ‘하루’는 낮동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입욕, 식사 등의 서비스를 서비스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사설 주간보호 사회복지시설이다.
 - 데이서비스(day service)는 재가노인복지대책 사업의 하나로 1979년도부터 일본에서 실시되었다. 데이케어센터 당초에는 노인복지시설(데이서비스시설)을 서비스 제공의 장으로 행하는 동원서비스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1981년 개정에 따라 새로운

거택을 서비스제공의 장으로 행하는 방문서비스사업이 부가되어 2개의 제도로써 실시되었다. 동원서비스 사업은 재가허약노인의 생활자립, 사회적 고립감의 해소나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인 노고의 경감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특별양호노인홈, 양호노인홈에 병설한 데이서비스시설에 재가허약노인을 주 1-2회 동원시켜 입욕, 식사, 일상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서비스시설의 설치주체는 특별구를 포함한 시정촌 또는 시정촌이 위탁한 사회복지법인으로 각종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설비를 정비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동원, 운송서비스를 위한 버스가 배치되어 있다. 이용자는 각종 서비스와 훈련에 따르는 원재료비 등을 실비로 부담한다.





10. 오도리 공원

○ 방문목적 : 공공시설의 관광자원화 사례 벤치마킹

○ 주요내용

- 삿포로 시가지 중심에 있는 도심 공원으로 동서로 길게 산책로를 조성해 놓았다. 폭 약100m 거리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삿포로의 변화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삿포로 시민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로 관광객에게는 계절마다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삿포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삿포로 시내를 남북으로

나누는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 공원의 중심에는 라일락 등 화려한 꽃으로 장식한 정원이 있으며, 화단·분수·잔디밭 등이 나란히 이어져 있다. 1년 내내 다양한 축제와 볼거리들이 이어지는데, 매년 2월 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삿포로눈축제(유키마쓰리), 5월에는 라일락축제, 7월에는 삿포로여름축제가 열린다.

- 연수단이 오도리 공원을 방문한 시점에 눈축제는 열리지 않았지만, 북해도의 명물인 눈은 어디에 눈을 뒀도 볼 수가 있었고, 저녁 5시도 되지 않은 시각이었지만 주변이 어둑해져 오도리공원의 시계탑이 파리의 에펠탑과 같이 랜드마크로써 그 웅장함을 뽐내고 있었다.

- 또한 공원이나 거리의 나무들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도록 옷을 입혀 수목을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디자인을 달리하니 그 또한 하나의 볼거리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11. 구 홋카이도 청사 및 삿포로 시청

○ 방문 목적 : 랜드마크 및 문화유적지 활용사례 벤치마킹와 일본의 지방자치 자료수집

○ 주요 내용

- 1888년 미국 네오바로크 양식으로 지은 홋카이도의 두 번째 청사 건물이다. 첫 번째 건물은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재건된 이후 홋카이도의 고문서를 소장하는 도립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다. 약 250만 개의 삿포로산 붉은색 벽돌로 지어진 외관 덕분에 '붉은 벽돌(아카렌가)'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본에서 보기 드문 프랑스식 벽돌 쌓기 방법으로 지어졌다. 내부의 아치 기둥 모양이 우아하다.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며, 일본 국가 주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 홋카이도청 구본청사 내부에는 문서관, 자료관, 아카렌가 북방 영토관, 국제 교류 도산품 전시실, 기념실 등으로 나뉘어 있다. 문서관에는 홋카이도의 역사와 문화 자료를 포함한 각종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아카렌가 북방 영토관에는 북방 영토 역사를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와 포스터를 볼 수 있다. 국제 교류 도산품 전시실에는 홋카이도와 자매결연을 한 국제도시의 제휴 기념품과 홋카이도산 각종 특산물이 전시되어 있다. 홋카이도 각 지역의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도 있다. 과거 장관실로 이용되었던 기념실에는 역대 장관과 지사가 근무하던 흔적을 볼 수 있다. 창문 등에 정교하게 새겨진 여러 조각과 무늬들이 눈에 띈다. 창건 당시에는 천장에 회반죽을 발랐으나, 메이지 43년인

1910년 복구공사를 하여 입구 계단 위에만 초기의 천장 모양이 남아있다.

- 홋카이도 출신 유명 화가의 회화 20여 점이 전시되어 있다. 대부분 에도시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 중기까지의 역사를 다룬 그림들이며 둘러볼 가치가 있다. 홋카이도청 구본청사 건물 주변으로 사시사철 녹음이 우거져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된다.
- 구 홋카이도 청사가 지금은 청사로서의 기능이 없지만, 북해도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유적지로서 북해도를 여행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이곳 구 홋카이도 청사를 찾고 있다. 구 홋카이도 청사 옆에 신청사도 나란히 있어 청사의 과거와 현재 모습 견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 우리군 신청사도 신청사 내 옥상광장, 주민편의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어 공공시설의 관광자원화 사례로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었다.

◆ 일본의 지방자치 자료수집

- 일본은 1868년 메이지 유신(明治維新) 이후 수차례의 법률 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지방자치를 형성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헌법 및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 헌법상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제8장 제92조부터 제95조에 명기되어 있다. 지방자치 조직은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분리원칙에 따라 양자가 상호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 지방공공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모두 그 지방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선거 일정

의 중복을 피하고자 단체장 및 의원 선거일정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4년에 1회, 4월에 실시(통일지방선거)한다.

- 구헌법에서의 관선지사(官選知事)에 의한 지방행정에 대신하여, 신헌법에서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사를 장(長)으로 하는 지방공공단체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주민의 지방의회 해산청구권, 장(長) 및 의원의 해직(解職)청구권 등은 직접민주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시(市)·정(町)·촌(村) 자치단체의 경찰이나 교육위원 공선제(公選制)가 폐지되고, 재정면에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는 등 지방자치의 현실은 당초의 기대에 어긋나는 점이 많다.

-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에는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가 있다. 보통지방공공단체는 한국의 광역시도에 해당하는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과 한국의 시군구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1,727개의 시정촌(市町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지방공공단체는 도쿄도(東京都) 내의 23개 특별구(特別區), 지방공공단체조합, 재산구(財産區), 지방개발사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울주군의 랜드마크, 옹기마을의 활성화

: 한성울 의장

- 연수단이 다녀온 기타이치 가라스관은 오타루의 특산품인 유리공예품 전시관이다. 간단한 기념품부터 화려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소품까지 유리로 만든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곳으로 1,000여점이 넘는 유리공예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기타이치 가라스 주변에는 비슷한 스타일로 운영하는 유리공예품 전시관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 도심속 전시관 견학과 산책을 즐기기에 적당한 곳이다. 기타이치 가라스의 유리공예 작업장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관광객에게 상시 공개되고 있었고, 여러 가격대에 크기와 용도도 천차만별인 유리공예품의 전시·판매로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주머니를 열게 하였다.
- 또한 오타루 오르골당(小樽オルゴール堂)은 오타루의 명물 오르골을 전시 판매하는 상점 중 가장 큰 규모다. 세계 각국의 모든 오르골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판매하는데 무려 3만여 점에 달한다. 연주자가 직접 연주하는 오르골, 자동연주 오르골도 있고, 크기도 형태도 연주곡도 다양한 오르골이 가격대도 저가에서 고가로 다양하여 오타루에 오면 오르골 하나 정도는 기념품으로 소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특산물이자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 같았다.

- 옹기는 정체성과 역사성이 있고 매우 차별화되는 전국에 둘도 없는 좋은 관광자원이자 울주군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매체이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옹기를 울주군의 랜드마크로써 관광자원화하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키우기 위하여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오고 있으나, 그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아쉬움을 남기고는 하는데, 우리군의 옹기마을에 기타이치 가라스관과 오타루 오르골당을 벤치마킹하여 옹기를 활용한 크고 작은 상품을 개발하고 관내 주요 행사장이나 공공시설물 등에 옹기모양의 소품을 전시하고 옹기모양 조각품이 있는 거리를 조성하는 등의 여러 활용 방안을 시행한다면 전세계인에게 옹기의 아름다움과 함께 울주군의 명성 또한 알릴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산악관광자원 개발사례 자료수집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권영호 부의장, 조충제 의원

- 일본 북해도 노보리베츠의 지고쿠다니는 약 1만 년 전에 폭발한 카사야마 활화산의 분화구로, 직경 450m, 반경 12ha에 이른다. 부글부글 끓는 수많은 분출구에서 솟아난 온천수가 계곡을 따라 흐른다. 또한 북해도의 도야 호수의 남쪽에 있는 우스잔은 2만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화산 활동을 하고 있는 활화

산이다. 도야 호수도 우스잔의 화산 폭발로 생겨났으며 도야 호수의 온천도 1910년 우스잔의 분화로 인해 생긴 것으로 여기지고 있다. 아름다운 도야 호수와 도야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바라볼 수 있으며, 쇼와신잔의 모습도 볼 수 있다.

- 연수단이 다녀온 지고쿠다니는 지고쿠다니임을 알리는 이정표에서 온천수가 솟아오르는 분화구까지 별다른 추가시설 없이 산책로만 이어져있고 온천수 계곡 아래쪽으로는 온천수를 활용하는 숙박시설들이 즐비해있다. 자연자원 자체를 잘 살려 관광자원화한 좋은 본보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활화산인 우스잔도 자연자원을 그대로 살린 상태에서 스토리를 입혀 관광자원으로 개발한 곳으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곳이기도 하다.
- 우리군에도 영남알프스라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좋은 산악관광자원이 있다. 산새가 빼어나고 계절마다 다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자연상태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광자원이지만, 우리군에서는 명실상부 산악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영남알프스 산악관광의 전초기지인 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를 개관하였고, 관광안내소, 카페테리아, 영화관, 인공암벽장 등을 조성하였으며, 최근엔 번개맨 우주센터도 개관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개최해오고 있다. 하지만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은 것 같다. 케이블카, 질라인, 산악레포츠 등과 같은 산 정상에서 절경을 감상하고

몸소 즐길 수 있는 산악체험시설과 해넘이를 보며 잠들고 새소리와 안개 자욱한 산의 운치를 느끼며 잠에서 깰 수 있는 자연 속의 숙박시설, 건강한 산먹거리와 지역특산품을 식자재로 한 요식업시설 등 머무르는 관광이 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울주군내 다양한 관광자원들과 연계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관광홍보물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울주군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해양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 박동구 의회운영위원장

- 일본의 도야호수는 직경이 무려 10km에 달하는 칼데라 호수로 최대 심도가 179.7m에 이르며, 1949년에 시코쓰도야[支笏洞爺]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 오타루운하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서부 오타루[小樽]에 있는 운하로 1914년에 착공되어 9년 걸려 완공되었고 오타루의 상징이 되는 장소이다. 시대가 지나면서 운하는 원래의 운송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 방치되었으나, 1980년대 시민들의 복원운동에 힘입어 복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며, 20세기 초반에 운하를 따라 건설되었던 창고들은 쇼핑점, 박물관, 레스토랑으로 변모하게 되어, 현재 오타루 운하를 가면 낮에는 운하를 따라 가지런히

늘어선 작은 가게들을 볼 수 있고 밤에는 63개의 가스등에 불이 들어와 연인과 함께 운치 있는 산책을 즐길 수 있다.

- 우리군 서생면에는 일본의 도야호수나 오타루운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넓고 시야가 트이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고 동북아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서 해맞이로도 유명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하는 간절곶이 있다. 이런 간절곶을 더욱 명소화하기 위해 우리군에서는 요즘 간절곶 명소화 사업을 한창 추진중에 있다. 모름지기 관광지는 관광객들이 머무르고 즐길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헤치는 우를 범해서도 안될 것이다. 해양자원이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해안경관에 입지하는 시설물 자체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자연경관 그대로를 잘 살리면서도 그 시설물들이 주변경관과 얼마나 조화를 잘 이루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군 간절곶 명소화 사업 추진시에도 주변경관디자인과 잘 어우러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추진과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정책·시설 운영 자료수집

: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 김민식 의원

- 전세계 주요국가들이 초고령사회라는 인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은 이미 1970년에 고령자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4년만인 1994년에 14%를 돌파하는 등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지금은 인구의 약25%가 65세이상 노인이 차지하며, 특히 2015년에는 80세 이상의 초고령자가 1,002만명 (우리나라 인구의 20%)이나 되어 초고령국가 세계1위를 하였다.

- 일본 정부는 1980년대부터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골드플랜21, 개호(간호)보험제도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골드플랜21은 치매성 고령자 지원 대책, 종합 질병관리 추진, 지역 생활 지원체제 정비 등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이고, 개호보험제도는 40세 이상 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강제적 사회보험제도이다. 개호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령층의 의료·보건·복지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유사하며, 보험료 납부시 각종 시니어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 또한 일본은 노인을 돕는 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있는데, 몸이 불편한 노인들의 가족을 대신하여 사회사업가나 간호사 등의 전문가가 가정에서 직접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해주며 필요에 따라 복지서비스 및 공적보건시설 등을 바로 제공받고 도움받을 수 있고, 야간이나 긴급 상담에도 대처가 가능하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노인보건시설이나 병원에 노인보호 및 지원센터가 병설되어 있다.
- 연수단이 방문한 사회복지법인 노마드복지회 데이서비스센터 ‘하루’도 낮동안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입욕, 식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립된 사설 주간보호 사회복지 시설이다. 서비스센터에서 의료행위를 하지는 않지만 서비스센터의 분위기를 아늑하게 유지하여 입소자가 또래의 노인들과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점과 센터에서 차량으로 노인들의 집까지 입·퇴소를 시켜주는 점이 인상깊었다.

- 울주군의 지역특성상 타 지자체보다 노령화 정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심화될 전망이다, 이제는 우리군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심신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난 대응·대비 사전준비

: 박기선 원전특별위원장, 이동철 의원

- 연수단이 다녀온 일본의 홋카이도(북해도)는 일본 열도 중에서도 최북단에 위치한 섬으로 사계절이 뚜렷하며 겨울철에는 특히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일본은 태풍·지진·폭설 등 각종 자연재해를 자주 일어나서인지 재난이 발생 전의 대비부터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연수기간 내내 받았다.
- 연수단이 방문했던 도야호 비지터센터는 활발한 화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우스산 등 도야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자연과 그 자연과 친해지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전시를 하고 있고, 화산과학관은 1977년 분화시 분연이 12,000m까지 올라갔고 대략 30년이라는 주기로 수차례 분화를 반복해 온 우스산의 화산활동을 영상과 해설, 체험 장치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화산분화시의 피난소 생활을 한눈에 보

여주는 전시도 있는데, 단순히 화산 자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화산 재해 시의 인간 생활에 대해서도 전시를 한 점이 인상적이었다.

- 또한, 고속도로변에는 적설량을 재는 눈금자 역할의 기둥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일정 눈금이상으로 눈이 오면 고속도로는 사고가 크게 날 위험이 있어 차량 자체를 전면통제한다고 한다. 그리고 보행자 등을 위해 인도나 도로변에 모래함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고 제설차량이 수시로 눈을 치우고 모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재난시 비상 대피를 위한 출입구 표시를 해놓고, 표시가 있는 유리문 아래에는 짐을 놓지 않으며, 야간에도 항상 비상구에 불을 켜놓아 밤에 재난이 일어나도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전을 중하게 여기는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 일본은 자연재해가 잦아 ‘언제든 나에게도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각 지자체에서 상시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수습하는 수준이고 어디까지나 차선책이다. 우리군도 자연재해를 비롯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야 할 때이다. 차바 태풍,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등을 겪은 우리군도 더 이상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닌 이상 평상시에 안전에 대해 사전에 교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체험시설, 재난 대응·대비시설 및 재난대책 매뉴얼 등이 빠른 시일내 갖추어 국민의 안전을 사전에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 공원시설 자료수집 및 활용방안 모색

: 정수진 의원

- 연수단이 방문한 홋카이도에는 공원들이 많이 있었다. 공원들은 저마다 특색이 있었다. 일본 에도시대 역사·전통·민속 을 주제로 한 역사공원인 다테지다이무라(시대촌), 삿포로시 도심의 남과 북으로 나누며 거주민에게는 안락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계절별로 다양한 축제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세계인을 불러 모으는 오도리 공원, 지금은 관공서 본연의 기능은 상실하였지만 여전히 살아서 관광객과 호흡하는 구 북해도청, 얼지 않는 호수의 경치를 즐기는 도야호수 등 거대한 규모의 역사테마파크와 도심공원, 해양공원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 우리군 지역에도 날로 공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또한 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도시공원의 조성으로 각종 대기오염물질이나 이산화탄소, 중금속 등을 식물이 흡수함으로써 오염물질을 정화시키고, 녹음이 햇빛을 차단하여 대기의 기온을 저감시켜 지구온난화를 예방하는 데 일조하기도 하며 소음, 먼지 등을 차단하고 방풍조림, 녹음조성 등으로 기후를 조절하며 태풍, 홍수, 화재등의 재난을 완화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군민에게 휴식, 휴양, 산책, 자연감상 등 다양한 여가 생활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도 하고, 도시의 경관미를 높이기도 한다. 또한 각종 행사 및 집회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이용객

들이 수시로 모여들어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 또는 지역민들이 친밀감을 증대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일조를 하기도 하여 매우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원의 대부분이 단순한 공원 또는 체육공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다테지다이무라(시대촌)와 같은 역사·전통·민속을 주제로 한 공원이나 특산물 또는 특산품을 소재로 한 공원, 연극 등의 공연을 수시 상연하는 공원, 레저공원 등 특정 소재나 주제를 다루거나 스토리를 입힌 테마가 있는 공원의 조성·개발이 있다면 우리군을 홍보하고 관광수익을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VI 총평

- 이번 연수는 울주군의회 의원들이 행정·문화·복지·관광·안전대책 등 여러 분야를 우리군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의 다양한 선진·우수 사례들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검토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연수단은 2018년 1월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간 일본 홋카이도(북해도)를 중심으로 일본의 행정·문화·복지·관광·안전대책 등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험을 위해 관련 시설물 등을 방문하여,

선진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군 정책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연구하였음.

- 특히, 연수단이 방문한 홋카이도는 겨울철 적설량이 사람 머리 위로 올라와서 교통이 통제가 되기도 하고, 살아있는 화산이라고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실상은 안전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활화산이 생활 반경 내에 있는 등 열악한 환경을 가졌지만, 이 또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세계적 명소로 발전시켰으며 이로써 어마한 관광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음.
- 홋카이도의 방제작업이 잘 되고는 있었지만 연수지역 기후의 특성상 도로에 눈이 워낙 많이 쌓여있는 등의 사유로 기존 계획된 일정이 변경되어, ‘히카리하이츠베리스마코마나이 노인복지시설’ 대신 ‘사회복지법인 노마드복지회 데이서비스센터 하루’를 견학하고, ‘이시카리지구 지역방재시설’ 대신 ‘도야호 비지터센터 화산과학관’을 견학하여 당초 일정을 고수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웠으나, 전체 연수목적은 달성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다고 판단됨.
- 이번 연수를 통해 연수단은 일본의 제도·정책·시민의식·선진우수 문화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깨우치는 것도 많았고, 배움에는 끝이 없고 배움은 언제나 즐겁고 유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세계로 향하는 우리 군정에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넓어진 안목으로 우리군의 주요 행정을 견제·감시하고 다양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